

# 美 대학 내 종교모임 늘고 있다

### 아타카다서 불교·가톨릭 모임 활발 외국인학생 美 대학생 종교성 자극한 효과

미국에서 탈종교 현상이 심각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일부 대학가에서 이와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교내 종교 모임의 다양성은 물론 수도 많아지고, 그 활동 역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양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이해하려는 대학생들의 노력이 종교학 관련 강의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매체 이타칸(theithacan.org)은 3월 7일자 보도를 통해 "이타카대학(Ithaca College)부설 종교관에서 재학생들의 종교 모임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칼스턴 마틴슨(Carsten Martensen·대학 부설 종교관장) 교수의 말을 인용해 "대학 부설 종교관에서 매주 3번 이상의 종교 모임이 이뤄지고 있으며,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종교 모임이 진행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타칸은 UCLA에서 정부 지

원을 받아 '청년기와 종교-대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7년간 연구한 결과,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이 그렇지 않는 청년들 보다 종교에 더 관심을 보이며, 개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주목했다. 아티칸은 "동시대 대학생들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길 바라고 있다"며 "어떤 종교이든 그 공동체는 이런 대학생들의 쉽게 찾는 어울림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마틴슨 교수는 "이타카대학의 경우, 종교관 이용 빈도를 생각하면 불교와 가톨릭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며 "이들 두 종교 모임의 규모와 횟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정도 증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관을 고집하지 않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제한 마틴슨 교수는 "이는 각기 다른 종교 전통을 따르는 학생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종교 모임을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



美 대학가에서는 좌선을 하고 명상하는 학생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틴슨 교수는 "종파를 초월해 종교 모임을 만들고 헌신하는 것은, 종교를 회통하는 가르침인 나눔과 사랑이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편, 이타카대학 불교공동체(IC Buddhist Community) 대표 크리스토퍼 아케르도 2세(Junior Christopher Accardo)는 "학생 스스로 포교나 선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SNS도 효과적이다"며 "특히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대학생들이 모여 종교 모임

을 결성할 수 있는 것은 페이스북(facebook) 등의 활성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모든 활동에 다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는 개신교공동체 대표 톰 2세(Junior Hunter Tom)는 "미국 대학 내 외국인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종교에 대한 다른 관심을 폭넓게 접하게 되고, 이 과정이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종교적 자극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부탄, 국민의 51% "행복하지 않다"

### 부탄중앙연구 조사결과 발표... 국민총행복지수위 반발

'행복의 나라'로 불리는 부탄이 행복하지 않다.

온라인 매체 허프포스트(huffingtonpost.com) 미국판(U.S. Edition)은 3월 3일 부탄중앙연구소(Center for Bhutan Studies)의 최근 '행복도 조사결과'를 인용, "부탄 국민의 51%가 아직 행복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허프포스트는 이와 함께 부탄 국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Jigme Khesar Namgyel Wangchuck)의 조카인 이왕 핀다리카(Yiwang Pindarica·24) 왕자의 말을 인용, "하루 벌여 하루를 살아가는 젊은층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그들에게 불교와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는 큰 의미가 되질 못했다"고 전하고, "행복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49%만이 부탄 정부가 1972년 내세운 행복조건(국민총행복지수)에 부합할 뿐"이라고 풀이했다.

부탄방송(Bhutan Broadcasting Service) 역시 이번 조사결과를 보도하며 "정부는 종교와 자연에 의지한 행복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부탄 국민은 윤회를 믿는 착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그 다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탄 정부의 국민총행복지수 위원회 트시템(Tshiteem) 대변인은 "부탄 정부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7142명 중 90%가 '행복하다'고 응답했다"며 부탄중앙연구소 조사결과를 반박하고, "불교는 사람들의 행복의 열쇠이며, 부탄 국민 대부분 불교적 삶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이하



부탄은 '행복한 나라'였으나 최근 국민 51%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해 나라가 떠들썩하다.

GNH)는 1972년 부탄 정부가 '행복은 국가 경제력에만 근거하지 않는다'는 데서 내세운 행복의 개념으로, 2007년 4월 OECD는 국민총행복을 목적에 따라 평균 행복(Average Happiness), 행복수명(Happy Life Years), 행복불평등(Inequality of Happiness), 불평등 조정행복(Inequality-Adjusted Happiness)의 4개의 세부 행복지수로 구분하고 각 국가의 GNH 정도를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GNH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10월 "부탄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 범죄, 폭력, 마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부탄 정부는 경제가 탄탄해야 국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

## 독특한 시각의 탁월한 선불교학자

### 세계의 불교학자(10)

베르나르 포르 美 콜롬비아대 교수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 교수는 프랑스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불교학자이다. 파리대학에서 불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정치학·종교학을 연구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동남아 등에서 10여 년간 아시아 종교를 연구하기도 했다. 1988년 스탠포드대학 종교학과 재직 후, 스탠포드 불교연구소 소장 등을 거쳐 콜롬비아대 교수로 있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는 콜롬비아대 교수로 지내며 세계 여러 대학에서 강의와 강연을 맡고 있다. 포르 교수의 강연은 대체로 불교 전통과 그 주변 문화적 요소들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2004년 일본 교토와 나라를 오가며 일본의 성산(聖山) 숭배의식과 불교의 관계를 조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의 학문적 평가는 그가 창의적인 선불교 연구자라는 것이다. 그에게서는 문헌학에 치우친 불교학자들이 보여주는 연구범위의 편협함이나 전방위적 지식의 결핍을 찾을 수 없다고 전해진다. 또, 종교연구자들이 이론적인 담론 생산에 치우친 나머지 가지기 쉬운 문헌학적 소양의 결핍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베르나르 포르 교수가 종교사학자로서 또는 동아시아 불교연구자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동아시아 불교연구자는 인도불교·티베트불교 연구자와 달리 일차적으로 문헌학자여야 한다는 부담 없이 일면 자유로운 영역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의 연구는 방법적으로 전통적인 역사기술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선사상 관념을 해체·비판한다. 포르 교수는 이를 위해 세밀하게 수집한 방대한 분량의 2차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이런 학문적 경향은 프랑스 학풍의 영향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에게서 불교연구에 민족지학 자료까지 채택했던 드미에빌(P. Demiéville)의 경향을 비롯해 1950년대 뒤몽(L. Dumont)의 그룹에 모였던 구조주의적 인도학자들, 프랑스 철학자 푸코를 발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주목할만 하다. 그만큼 베르나르 포르 교수에게서는 프랑스의 지적 풍토가 배어 나온다. 베르 교수의 연구자료와 방법론에서는 확실히 혼종적인 연구성격이 보인다.

세계2차대전 후 미국 아카데미 내에서 선불교 연구는 북중선 연구 중심의 초기 선종연구와 일본불교 특히 도겐(道元)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 전자는 돈황문헌과 야나기다 세이잔(柳田聖山)의 연구에 자극 받은 결과였다. 후자는 미국 내 일본불교의 영향과 그에 따른 교도학파의 철학적 저작들에 대한 지적인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는 양쪽 주제 모두에 영향을 받고 또 비판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자 후일 단행본으로 출판된 <전통을 향한 의지: 북중 선에 대한 비판적 계보>(The Will to Orthodoxy: A Critical Genealogy of Northern Chan Buddhism)가 그 예이다. 책에서 베르나르 포르 교수는 자신의 학문적 훈련 과정과 출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책에서는 아



나기다식의 전통적인 역사 비평의 연구경향도 보인다. 즉, 신수(神秀) 이래의 정치적이고 지적인 맥락을 보여주고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를 통해 만들어지는 북중선맥의 '정통성'을 살폈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는 책을 통해 <능가경> 계통의 조사들의 어둠을 다루며 북중선의 어둠들을 경전의 위치, 즉 정통성을 지닌 경전으로 자리매김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선불교와 다른 학파들과의 상호의존적인 복잡성을 그 근거를 제공했다. 전체적으로 지와 관, 돈과 점의 수행, 성과 속의 구분 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북중선의 절충주의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포르 교수의 이러한 절충주의는 북중선이 신화로 대비되는 남중선과 달리 독립된 <단경>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 특징이 드러난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의 이 책은 일본에서 공부한 대표적인 미국 선불교학자 존 맥크레이(John McRae)의 연구 성과물인 <북중선과 초기 선불교 전통의 형성>(The Northern

- 창의적인 선불교 연구자 학문평가
- 전통 역사 기술 초월해 선사상 비판
- 프랑스학풍 영향...독특한 연구방법
- 서양식 선불교 연구 보여줘 호평

School and the Formation of early Chan's Tradition)(1986)과는 시기적으로나 연구 결과적으로도 동일선상에 있다.

베르나르 포르가 선불교연구자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즉각성의 수사학 The Rhetoric of Immediacy>(1991) 때문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야나기다의 학문적 그늘 아래 있던 일본식 연구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진정한 '서양식' 선불교 연구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불교 연구의 소재부터 새로웠다. 그는 기존 선불교 연구에서 주로 취급했던 순수한 역사적 자료들을 선택하는 대신, 승려들의 환술법이나 기적현상, 불교 장례법, 불교 미이라 숭배현상, 꿈과 섹스 등의 소재 등 과거에 전혀 취급하지 않았던 대상들을 연구했다. 그리고 포르 교수는 이러한 종교적 현상들이 선불교 전통 속에서 함께 존재해 오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역사적 자료와 병합시켰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의 불교연구 특징은 특정 지역이나 시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으로도 정리된다. 그의 대부분의 저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부분적으로 한국의 자료들이 한꺼번에 활용되고 있다. 그 자료가 갖는 시대적인 간격도 매우 넓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론적인 분석이 덧붙여진다. 다소 위험하게 보이는 이러한 서술방식이 서구의 불교학자들에게 의해서도 거의 큰 비평 없이 수용되는 것은 그의 방대한 지식의 폭을 말해준다.

조동섭 기자